

# 세계 각국의 팬데믹 대응 : 의사결정체계와 과학 자문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지구적 경험이 시사하듯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에서 과학과 정책의 관계는 이른바 “과학을 따르라(follow the science)”는 명제를 넘어서는 보다 복잡적이고 섬세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보건정책연구컨소시움(HPRC)은 주요 국가들이 어떤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팬데믹에 대처해왔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학 자문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국, 대만의 경험을 살펴보는 이번 국제학술행사가 향후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준비도(preparedness), 더 나아가 보건정책 일반의 동학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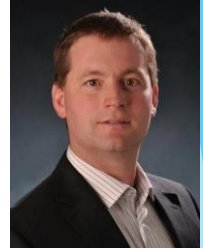
## ▶ 세션 1. 영국의 사례

- ▶ 연자 : Stephen David Reicher (University of St Andrews, UK)
  - ▶ 잉글랜드 과학자문위원회(SAGE) 행동과학 소위원회(“SPI-B”) 구성원
  - ▶ 스코틀랜드 과학자문위원회 구성원
- ▶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오후 4시 (KST, 70분)



## ▶ 세션 2. 미국의 사례

- ▶ 연자 : Roger Pielke Jr.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US)
  - ▶ *The Honest Broker: Making Sense of Science in Policy and Politics* 저자
  - ▶ 전세계 위기 대응 과학자문체계 평가 프로젝트(“ESCAPE”) 주관
-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1시 (KST, 70분)



## ▶ 세션 3. 대만의 사례

- ▶ 연자 : Li-Yin Liu (University of Dayton, US)
  - ▶ “Six Cs of pandemic emergency management: A case study of Taiwan’s initial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 등 공저
- ▶ 발표 : “Science, Politics, and Civic Engagement in COVID-19 Pandemic”
- ▶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 오전 11시 (KST, 70분)



- 전 행사 온라인(Zoom) 진행
- 참가신청 : <https://forms.gle/kred5GZZRmTpZ6UA6> 또는 QR코드 스캔

